

<第1 主題>



文化空間으로서의 自然公園 活用方案

鄭 權 燮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관리사무소장)

1. 머릿말

국립공원 제도는 미국에서 1872년 서부개척 시대 탐험가 커넬리우스 헛지에 의하여 엘로우 스톤 자연의 신비한 경관을 발견하고 개인의 소유보다 전국민이 공유하여야 한다는 소유개념에서 출발하였고 유럽이나 구라파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는 많은 자연훼손의 심각성이 극에 달하고 있을때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개념에서 정착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60년대 국토개발 계획이 성공리에 추진되면서 1967년 지리산을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이후 국립공원 제도가 시작된 이래 국립공원 20개 도립 20개 군립 26개로 국토면적의 6.8%인 7,442km²(육지 4,793.6km²)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게 되었는바 이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려 한다. (국립, 도립, 군립공원이 비슷한 형태로 활용 또는 이용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국립공원은 국토를 대표할 만한 풍경지를 국가가 지정 보호하고 적정이용을 도모하여 국민

의 보건휴양등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에 목적을 두고 보호와 이용의 합리적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전문성과 기술적인 행위를 이념으로 하고 있다.

다만 보호와 이용이라는 대립개념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난제이며 관리자의 철학과 신념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현실의 이용압력과 미래를 위한 보호목적 을 달성하는 「적정선」을 찾는것이 그리 쉽지만 은 않은것 같다.

지난 30여년동안 지속해온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소득증대, 자동차 보급 확대, 여가시간증대 등 생활환경의 급변화와 함께 여가활동 및 휴식의 대형화, 대량화에 우리의 전통적인 먹고 마시고 노는 문화까지 편승하여 자연공원을 찾는 탐방객은 13~15% 증가하여 년 3천5백만명에 달하고 있어 자연공원이 쓰레기로 오염되고 무분별하게 훼손되어 국민들에게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관리문제도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현실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문만 열면 자연과 마주치고 자연속에 살던 시대와는 달리 우리 삶의 공

간이 주택에서부터 직장까지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습막히는 자동차거리, 빌딩숲과 공장, 자연과는 담을 쌓고 폐쇄된 공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렇듯 도시화 산업화하면서 푸른숲, 맑은 물, 깨끗한 공기가 없어져 버렸다. 이들이 없어짐으로서 우리의 생존은 계속 위협받고 있으며 풀벌레소리 꽃향기 메뚜기 고추잠자리 은하수 등 과거 우리에게 다정한 이웃이었던 것들을 아쉬워할 뿐이다.

그 대신 우리는 생활의 편의나 물질의 풍요로움은 얻었을 지언정 삶의 뿌리를 박탈당하고 삶의 질이나 건강은 매우 위협받고 특히 청소년들의 정신문화는 황폐화 되어 요사이 텔레비전 보기가 무서울 정도다. 옛날부터 도를 닦거나 수양과 요양 심신단련 보양을 위하여 깊은산 명승지를 찾았으며, 청소년 수련단체인 화랑도의 도장이나 학문의 정진도 명산에서 하였음은 많은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같은 국립공원을 국민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원정책당국이나 관리단체에서는 여기에 알맞는 공원계획 가치중심을 다계층에 알맞는 다양한 시설로 국립공원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하루빨리 재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II. 문화공간으로의 활용방안

국립공원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자아실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사회에서 문화공간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공원이용이 재검토되어 명실공히 국립공원은 국민을 위해 삶의 질을 높여주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자연공원의 지형적 여건이나 공원의 위

지적 특성, 탐방객의 이용성향, 휴식시설 공원자원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연공원이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각 공원마다 현상황을 알릴 수 있는 비지타센터(탐방안내소)와 탐방프로그램이 반드시 개발되어야 하겠다. 공원 탐방전에 이곳에서 모든 필요한 자료와 지식을 습득 이해하고 정보를 얻는 장소를 조속히 각 공원별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가공간이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국립공원도 국토의 일부인 이상 「좁은 국토」 「많은 인구밀도」의 국토의 여건에 맞추어 국토이용을 국민의 건강이나 정서에 알맞게 효용가치를 극대화 하도록 하고, 국립공원 보호를 자연과 함께 국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다계층의 가치기준을 세워 가꿔가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 이용을 장기화 고급화 현대화 다양화로 국민의 여가를 국내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전통문화가 살아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많은 시설을 갖추어야 하겠으며 특히 현재 공원법상 공원계획의 취약지구가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므로 휴양촌으로 변경을 검토해 봄이 좋을 것 같다.

셋째,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뛰어난 풍경을 갖춘 산악이나 해안지대에서 운동선수들이 겨울철 여름철 훈련을 하고 있음을 감안, 일반 국민들이나 청소년들의 기초체력단련이나 양성을 위해 합숙 훈련장 강습장등 프로그램에 따라 훈련기능을 담당할 숙박시설 관련보조시설등을 만들어 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도록 많은 시설을 갖추자는 것이다.

넷째, 예술활동장으로도 활용하자. 자연과 함께 영감이나 감동을 느낄 수 있고 정서적 환경문화 속에서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등 예술활동을 위한 훌륭한 장소로 제공되어야 하겠다. 또한 야유회 야외축제 결혼식 회갑연등 적

극적인 활용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통적 불교문화 전승지로 활용하는 것도 뜻이 있을 것이다. 1600년간의 불교문화의 전통과 우리 문화재 80%가 불교문화재라는 점 그리고 유명한 사찰에서 볼 수 있는 건축양식과 탑, 불상등 불교문화를 보고 느끼고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불교문화 박물관 건설도 고려해 봄 직하다.

여섯째, 자연학습장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자연학습장으로 조류의 생태등을 탐구하는 활용, 바닷물속의 고기를 관찰하는 해저조사, 산짐승의 발자취를 찾아내는 탐적활동, 꽃나무, 풀등 식물이나 곤충조사등 무한한 자연 학습장으로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일곱째,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전시장 야외 음악장 야외 공연장등 문화공간 시설을 만들어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스키장 승마장 어린이 놀이터 광장 야영장 저수지 낚시터 등 체육시설과 레크레이션시설도 다양화하여 건전한 심신수련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 자동차 문화 발달에 수반하는 자동차 야영장(Auto Camping)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야영자동차, 이동식주택, 여가전용차량등 보급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도시를 벗어나 야영하려는 인구가 증가 추세이므로 이 분야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시설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연공원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고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개발 보급되어 국민정신과 건강이 건전한 정서로 뿌리를 내려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한 장소로 국립공원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III. 맺는말

자연은 우리의 뿌리를 발견케 해주고 다양하고 복잡한 자연 생태계 내에서 인간의 자신을 확인시켜주는 산교육장이 된다. 인간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은 자연속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자연속에서 자아의 발전이 무작정 자연을 찾는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무작정 산에 오르는 것은 도시의 공해와 번잡함을 잠시 피해 맑은 공기에 취해 있다 올 수도 있는 도피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연과 인간의 섭리로 연결된 끈을 발견할수는 없을 것이다.

산에 가서 단시간내에 정상을 정복하려 하는 행위는 도시화·산업화에 찌든 각박한 자아를 산에까지 와서 실현하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깊은 산 푸른숲속의 맑은 공기나 물을 마시며 기분좋은 심신에 취해있지만 말고 새롭게 공기의 존재를 자각해 보고 그 공기와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또한 깨끗한 약속한잔이 내 몸안에 들어오는 생동감을 느껴보자. 그러면 내가 우주자연속에 연대해 있다는 '소속감'을 확인하게 되고 나의 고양(뿌리)를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접촉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이용될때 우리 사회에서 파괴되어 가는 고귀한 우리정신 문화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연의 고마움을 마음속 깊이 느낄때 비로소 참다운 자연보호도 이루어질 것이며 자연공원을 문화공간화하여 최고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자리를 잡아갈 것이다.